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Morning Brief

하루에 하나



2026.10.1

OCTOBER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원/달러 환율

1,354.30원 (-2.40원)

KOSPI

6,838.04 (-32.77, -0.48%)

KOSDAQ

855.91 (+6.11, +0.72%)

국고채 10년 금리

4.407 (-0.069%p)

동 자료는 오늘 발간된 자료의
요약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각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hanafn.com



Special Report

10월 주식시장 전망과 전략 금리 5% 시대, 어떤 주식을 사야 할까 [이재만]

화장품 K-뷰티 중소형주 31 [박종대]

기업분석

세나테크놀로지 세나가 피지컬 AI 통신 기술의 주축이 될 것입니다 [이상훈, 김홍식]

포스코인터내셔널 에너지 위기에서 돈을 버는 실력 [유재선]

넷마블 쉬어가는 분기, 신작 출시 확정 필요 [이준호]

팬오션 3Q26 Pre: 점점 더 탄탄해지는 이익 체력 [안도현]

액트로 본업 안정화와 복미 신사업, 2027년 이익 체질 개선 [권태우]

산업분석

여행 연말에 바닥을 고민해봐야 하는 이유 [이기훈]

글로벌리서치

유비테크 높아진 기대와 현실의 괴리 [송예지]

블룸에너지 프리몬트 제조시설 확대와 800V DC 코멘트 [김시현]

단기투자유망종목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두산, DN오โต모티브, 세아베스틸지주, 해성디에스, 올릭스,

RFHIC, 티앤엘, 더블유씨피

하나증권

2026년 10월 1일 | Global Asset Research

Equity

Compliance Notice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10월 주식시장 전망과 전략

금리 5% 시대, 어떤 주식을 사야 할까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5%를 상회하며 S&P500지수 기준 일드갭(기대수익률-10년물 국채금리)은 제로로 수렴했다. 채권 대비 주식 투자 매력이 소멸되기 직전이다.

다만 국제 유가(WTI 기준)가 고점을 낮추고 있다는 점과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가격 민감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 시 기대인플레이션 부담을 낮추고 있다는 변화는 그나마 긍정적이다.

WTI 가격이 70~80 달러 수준으로 하락하고, 금리 정점 형성 이후 하락할 경우 미국 경기모멘텀 개선과 기업 이익 추정치 상향 조정 그리고 국내 증시의 경우는 외국인 순매수를 기반으로 상승 업종 확산 및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WTI 가격이 90 달러에서 80 달러까지, 10년물 국채금리 하락 시 S&P500지수의 기대수익률은 13%, 코스피는 11%다. 4분기에는 2027년 이익 추정치 변화가 중요하다. 최근 3년간 4분기 주가 수익률이 높았던 업종의 공통점은 3분기 실적 발표 중 다음 연도 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됐다는 점이다.

2027년 이익 증가율이 높고, 최근 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S&P500 반도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헬스케어 장비/서비스, 코스피 반도체, 전력기기, 2차전지 등과 같은 업종은 관심있게 볼 필요가 있다.

미국 경제가 Tech 중심의 투자 주도 성장을 이어가고 있어 국제 유가가 하락해도 실질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1999년에도 투자 주도 성장, 연준 기준금리 인상(하반기), 시중금리 상승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주도 업종 내 주가 차별화가 심화됐다. 당시 주가 차별화를 결정했던 변수는 ROE였다.

따라서 금리 5% 시대에는 업종 선택뿐 아니라 기업 선별이 중요하다. S&P500 내 ① 2026년 2분기 대비 3분기 또는 2026년 대비 27년 ROE 상승, ② FCF 증가 예상 기업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기업은 본문 24p 참고).

코스피의 경우 이미 국제 유가와 시중금리 상승을 반영하며 할인율이 급등해 있다는 점은 감안할 필요가 있다. 특히 YoY 이익 증가율 둔화 초기 국면에서는 영업이익률을 상승 여부가 주가 차별화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코스피 내에서 ① 할인율은 이미 상승해 있고, ② 원화강세를 감안해 영업이익률을 조정하더라도 2분기보다 3분기 영업이익률 상승(2027년 전망치도 고려), ③ FCF 증가 예상 기업에 대한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하다(기업은 본문 30p 참고).



Strategist 이재관 duke7594@hanafn.com
RA 손일수 ilsoosoon@hanafn.com

K-뷰티 중소형주 31

화장품 (Overweight)

I 브랜드

- 상장 중소형 브랜드 업체들은 레거시 브랜드가 대부분, K뷰티 글로벌 모멘텀의 주인공들과는 거리가 있고, 소외 기업 많음
- 2025년 중반부터 변화 시작, i) 미국 진출, ii) 틱톡과 아마존 중심 iii) 마케팅비 크게 올리며 시대의 흐름에 편승, 사업구조 일신하겠다는 전략적 의지
- 브이티/에이블씨엔씨부터 시작한 이 흐름은, 네오팜과 마녀공장, 최근에는 애경산업으로까지 이어지는 중
- 아직 갈 길은 멀고 과제도 많은 상황, 숫자가 떨어진 것보다 주가 하락폭이 훨씬 컸음

I ODM

- 2026년은 ODM 우위 시장, ODM 3~5위 하위 업체들에게 낙수 효과가 그 어느때보다 커지는 중
- 한국화장품제조역사, 엔에프씨/셀바이오휴먼텍/선진뷰티사이언스 등 화장품 소재 명가들이 ODM 새로운 강자로 부상
- 국내 건강기능식품 유통 플랫폼의 확대는 코스맥스엔비티/노바렉스 등 건기식 ODM 업체들에게 새로운 기회요인, 하이드로 젤 마스크의 글로벌 유행은 제닉/아이큐어 같은 ODM 업체들의 사업 규모를 한단계 올리는 중
- 분기별 들쭉날쭉한 발주로 실적 변동성 큰 상황, 단순히 계절적 요인이라면 저점 매수의 기회

I 부자재/원료

- 화장품 모멘텀은 밸류체인 측면에서 보면 용기부터 시작하는 게 일반적
- 원료는 원가 내 비중도 작고 50% 이상이 수입, 총판 체제로 파편화돼 있었으나, 2026년 글로벌 수출 급증으로 현대바이오랜드/대봉엘에스 등 원료 업체들 실적 변화
- 1. 엔에프씨/셀바이오휴먼텍/선진뷰티사이언스 등 소재 업체들은 업태의 울타리를 넘어 ODM 시장으로 진출
- 플라스틱에서 유리 용기로 확장, 한국 인디 브랜드 고유 정체성 감안 시 혁신성 측면에서 가능성이나, 가성비는 회의적

I 유통/임상

- 코스트코/타겟 같은 메이저 리테일러들의 K뷰티 전개 본격화로 무역벤더들의 역할 더욱 중요, 수요 또한 크게 증가
- 폰드그룹의 모스트, 상장을 앞둔 그레이스 같은 무역벤더들의 성장세가 가파름
- 해외 진출 확대로 화장품 임상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는 중

2026년 10월 01일 | 기업분석_기업분석(Report)

BUY (유지)

목표주가(12M) 80,000원
현재주가(9.30) 36,200원

Key Data

KOSDAQ 지수 (pt)	855.91
52주 최고/최저(원)	80,200/27,650
시가총액(십억원)	197.9
시가총액비중(%)	0.04
발행주식수(천주)	5,467.6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30.8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1.3
외국인지분율(%)	2.15
주요주주 지분율(%)	
케이오일호투자 외 2 인	45.30
카카오게임즈	14.63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233.2	272.8
영업이익(십억원)	40.3	54.4
순이익(십억원)	31.5	37.0
EPS(원)	5,706	6,767
BPS(원)	42,578	49,346

Stock Price**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167.5	179.3	233.2	272.8
영업이익	21.6	16.3	40.3	54.4
세전이익	25.2	19.4	43.4	56.1
순이익	19.0	16.7	31.5	37.0
EPS	3,822	3,277	5,700	6,769
종가율	73.41	(14.26)	73.94	18.75
PER	0.00	13.76	6.37	5.36
PBR	0.00	1.43	0.85	0.74
EV/EBITDA	(1.79)	8.23	3.74	2.79
ROE	16.65	11.04	15.38	14.73
BPS	25,314	31,550	42,581	49,349
DPS	0	0	0	0



Analyst 이상훈 sanghunlee0121@hanafn.com
Analyst 김홍식 pro11@hanafn.com

세나테크놀로지 (061090)

세나가 피지컬 AI 통신 기술의 주축이 될 것입니다

세나테크놀로지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80,000원 유지

세나테크놀로지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80,000원을 유지한다. 추천사유는 1) 하반기 계절성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산업현장용 제품 수요가 증가하여 실적 성장이 이어질 전망이고, 2) 내년 1분기부터 자율주행 골프캐디 로봇을 국내 골프장에 공급하여 본격적인 피지컬 AI 기업으로 입지를 확보 중이며, 3) 피지컬 AI 실증 작업을 추진 하면서 발생할 로봇간, 로봇-사용자간 통신문제의 해법으로 세나의 메쉬 기술이 부상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여러 건의 주가 상승 재료가 발생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5G SA/6G에 연계된 메쉬 통신이 로봇간 소통을 담당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로봇은 본질적으로 스마트폰이나 PC와 동일한 단말기이다. 자율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선 트래픽이 생성되고 망에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로봇과 통신을 별개로 구분해선 안되고 어떤 통신 인프라가 구축되는지가 관건이다. 그런데 5G SA/6G용 고주파수 대역의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고주파수는 대역폭이 넓어서 로봇이 생성할 막대한 트래픽을 감당하기에 효과적이라 경제성이 높은 도시권에서 운용하기에 좋다. 반면 피지컬 AI의 또다른 활용처가 될 농업, 군사, 건설현장 등은 주파수 장애물이 많은데 비해 환경 가변성이 높고 작업 공간이 계속 이동하는 경우도 있어서 망구축 경제성이 낮다. 이전 자료부터 언급했듯이 이런 환경에선 메쉬 통신이 효과적일 수 있는데, 국소 네트워크 안에서 코어와 기지국 없이 각 단말이 자체 중계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도시권 전반 및 인구희박지역의 백본을 5G SA/6G가 담당하고 그 외 음영지대를 메쉬 통신이 보완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겠다.

시대별로 핵심 통신 인프라 주가는 대폭 상승했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피지컬 AI 경쟁이 활발해짐에 따라 메쉬 산업 개화시점도 앞당겨지고 있다. 최근 오픈 AI와 엔트로픽이 로보틱스 관련 인력을 대거 채용 중이고, 국내에서도 기획예산처가 2030년까지 자율제조, 중소제조, 농업, 건설, 물류, 항만, 돌봄, 국방 8대 분야에서 피지컬 AI 실증을 마칠 방침이다. 이렇듯 시장 개화가 몇 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과거 IT버블 시대 대규모 케이블망이 부설되고 시스코가 한때나마 시가총액 1위를 차지했던 사례나, 최근 시가 부상하며 반도체주에 이어 광통신주까지 주목받은 사례를 복기해볼 필요가 있다. 결국 단말기 생태계가 활성화되려면 인프라가 전제되어야 하고, 주가 역시 산업간 구별이 무의미하게 트래픽과 병목을 따라 물 흐르듯 연계된단 뜻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수년간 이어질 각국의 실증 작업에서 로봇간, 로봇-사용자간 통신 연계 문제가 반드시 발생할 것이며, 해결책으로 메쉬 통신이 급부상할 것이다. 아직 로봇과 연계된 메쉬 기술이 생소한 개념이란 점을 감안하면 실증 과정에서 주가 상승 재료로 작용할 공산도 크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세나테크놀로지 매수 후 보유전략은 유효하다고 판단한다.

2026년 10월 1일 | 기업분석_Earnings Preview

BUY (유지)

목표주가(12M) 105,000원
현재주가(9.30) 56,900원

Key Data

KOSPI 지수 (pt)	6,838.04
52주 최고/최저(원)	87,300/45,650
시가총액(십억원)	10,010.0
시가총액비중(%)	0.18
발행주식수(천주)	175,922.8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1,219.6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66.5
외국인지분율(%)	6.19
주요주주 지분율(%)	
포스코홀딩스 외 2인	50.01
국민연금공단	7.05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35,288.7	36,145.3
영업이익(십억원)	1,474.9	1,559.6
순이익(십억원)	966.6	1,031.4
EPS(원)	5,264	5,634
BPS(원)	42,369	45,629

Stock Price**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32,261.0	32,373.6	34,364.5	35,441.6
영업이익	1,157.8	1,165.3	1,475.4	1,646.0
세전이익	761.7	835.1	1,257.2	1,443.3
순이익	514.6	614.1	957.7	1,082.6
EPS	2,925	3,491	5,444	6,154
증감율	(23.71)	19.35	55.94	13.04
PER	13.56	14.21	10.45	9.25
PBR	1.06	1.30	1.39	1.28
EV/EBITDA	7.72	9.05	8.21	7.44
ROE	8.14	9.27	13.78	14.46
BPS	37,359	38,290	41,060	44,393
DPS	1,550	1,850	2,720	3,080



Analyst 유재선 jaeseon.yoo@hanafn.com
RA 박시현 boxyhyun@hanafn.com

포스코인터내셔널 (047050)**에너지 위기에서 돈을 버는 실력****목표주가 105,000원, 투자의견 매수 유지**

포스코인터내셔널의 목표주가 105,000원과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한다. 3분기 실적은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할 전망이다. 국제유가 상승이 에너지 부문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환율 등 대외 변수 변화의 부정적 효과를 극복하는 중이다. 신규 팜 법인 인수, 에너지 자산 생산량 확대 등을 감안하면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이 지속 경신될 것으로 예상된다. 겨울철 에너지 원자재 가격 상승 리스크에 대비할 시점이다. 2026년 기준 PER 10.5배, PBR 1.4배다.

3Q26 영업이익 3,958억원(YoY +25.3%) 컨센서스 부합 전망

3분기 매출액은 8.3조원으로 전년대비 0.2% 증가할 전망이다. 에너지 부문의 외형 성장이 소재 부문 둔화를 만회할 것으로 보인다. 소재 부문의 철강과 무역법인은 물량 변화가 크지 않은 가운데 환율 변화에 따른 외형 감소가 예상된다. 소재/바이오도 환율 영향과 발전용 석탄 등 일부 물량 변화에도 매출 감소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투자법인은 건조한 팜 시황과 계절적 성수기가 겹쳐 외형 성장이 기대된다. 에너지 부문의 E&P는 과거 유가 강세 영향이 미안마 가스전의 판가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며 매출 확대가 예상된다. 발전사업은 SMP 상승에 외형 성장이 가능하며 LNG/터미널은 특이사항이 없을 전망이다. 투자법인은 세넥스의 증산 효과 본격화로 외형 확대가 기대된다. 영업이익은 3,958억원으로 전년대비 25.3% 증가할 전망이다. 소재 부문에서 철강은 달러 대비 유로화 약세로 마진 하락이 예상되며 소재/바이오 및 무역법인은 비슷한 흐름이 예상된다. 팜은 신규 인수 법인 연결 인식 및 성수기 효과로 유의미한 증익이 기대된다. 에너지 부문에서 미안마 가스전과 발전사업은 판가 상승으로 전년대비 개선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세넥스는 하반기에 생산량 증가가 집중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물량 확대에 의한 영업레버리지 효과가 예상된다.

미국 가스전 인수에 이어 에너지 자산 추가 투자 기대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자유로운 북미 가스전 자산이 포트폴리오에 추가되었다. 유가 강세가 인플레이션에 기여하는 만큼 실적은 에너지 자산의 수익성 개선으로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현재 미안마 가스전 4단계 투자가 진행 중이며 Cost Recovery 비율도 당분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세넥스도 2027년 이후까지 증산이 이뤄질 예정이며 북미 가스전 또한 장기적으로 외부 판매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세일가스전 인수에 이어 북미와 동남아에서 추가 상류자산 투자가 기대되며 특히 동남아 자산의 경우 운영권 확보 시 LNG 트레이딩 역량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2026년 10월 1일 | 기업분석_Earnings Preview

BUY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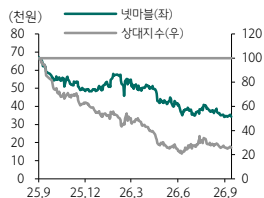
목표주가(12M) 50,000원
현재주가(9.30) 34,400원

Key Data

KOSPI 지수 (pt)	6,838.04
52주 최고/최저(원)	62,100/34,150
시가총액(십억원)	2,860.6
시가총액비중(%)	0.05
발행주식수(천주)	83,158.4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144.0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5.3
외국인지분율(%)	13.90
주요주주 지분율(%)	
방준혁 외 12 인	38.85
CJ ENM	17.34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2,918.7	2,971.6
영업이익(십억원)	327.7	371.5
순이익(십억원)	514.5	298.0
EPS(원)	6,074	3,493
BPS(원)	73,021	75,573

Stock Price**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2,663.8	2,835.1	2,829.3	2,739.6
영업이익	215.6	352.5	284.2	284.5
세전이익	76.3	346.2	684.0	377.3
순이익	25.6	225.0	511.5	278.9
EPS	298	2,618	6,169	3,354
증감률	흑전	778.52	135.64	(45.63)
PER	173.49	18.43	5.58	10.26
PBR	0.76	0.71	0.46	0.45
EV/EBITDA	14.86	10.21	7.32	6.64
ROE	0.49	4.15	8.89	4.52
BPS	67,728	67,887	74,041	76,453
DPS	417	876	964	964



Analyst 이준호 junholee95@hanafn.com

넷마블 (251270)**쉬어가는 분기, 신작 출시 확정 필요****3Q26 Pre: 컨센서스 하회 전망**

넷마블은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수익 6,950억원(-0.1%YoY, -3.1%QoQ), 영업이익 707억원(-22.2%YoY, -30.0%QoQ, OPM 10.2%)으로 컨센서스와 기존 추정치를 하회할 전망이다. 3분기 신작 출시가 없었고 기존작들의 하향 안정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상반기 출시한 [일곱 개의 대죄: Origin]과 [몬길: STARDIVE]는 PLC 장기화를 위한 개선 작업, 업데이트 지속하고 있으나 유의미한 반응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3분기 영업비용은 6,235억원(+3.0%YoY, -6.8%QoQ)으로 추정한다. 매출 대비 지급수수료율은 32.4%(+0.1%pYoY, +0.9%pQoQ)으로 예상된다. 전분기 대비 외부 IP 비중 증가, [SOL: enchant] 개발사 지급분을 온기 반영한 영향이다. 매출 대비 마케팅비 비율은 21.7%(+0.8%pYoY, -2.8%pQoQ)로 추정한다. 신작이 없었음에도 기존작들에 대한 마케팅 지속, 도쿄게임쇼 2026 참여로 높은 비율의 집행을 예상한다.

하반기 신작 3종 출시 확정 필요

넷마블은 2026년 영업수익 2조 8,293억원(-0.2%YoY), 영업이익 2,842억원(-19.4%YoY, OPM 10.0%)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 4분기 3종의 신작을 준비 중이다. 도쿄게임쇼 2026에서 [나 혼자만 레벨업: 카르마]와 [상그릴라 프론티어: 일곱 최강종] 시연 부스를 운영, 현지 마케팅을 진행했다. 연내 출시되기 위해서는 10월 내에 출시 일정이 공개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신작은 [프로젝트 이시스]다. 미국 자회사 카밤이 개발하고 있는 AFK 방치형 RPG로 [마블 콘테스트 오브 챔피언스]와 같이 글로벌 IP를 활용한 신작으로 추정된다. 아직 구체적인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기에 추정치에 공격적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 마케팅과 함께 추정치 반영 예정이다.

투자의견 Buy 유지, 목표주가 50,000원 유지

투자의견 Buy 유지, 목표주가를 50,000원을 유지한다. 현재 주가는 상반기 출시한 [일곱 개의 대죄: Origin]과 [몬길: STARDIVE]의 아쉬운 성과와 3분기 신작 부재로 실적 눈높이가 지속적으로 하향되면서 역대 최저가 수준을 기록 중이다. 4분기 출시 예정인 신작 3종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높지 않은 상황이기에 이번 3분기 실적발표를 전후로 출시 확정과 동시에 2027년 신작 라인업을 공개하여 실적 성장의 가시성을 확보한다면 강한 반등이 가능한 구간이라고 판단한다.

2026년 10월 1일 | 기업분석

BUY (유지)

목표주가(12M) 9,000원
현재주가(9.30) 5,770원

Key Data

KOSPI 지수 (pt)	6,838.04
52주 최고/최저(원)	6,380/3,550
시가총액(십억원)	3,084.5
시가총액비중(%)	0.05
발행주식수(천주)	534,569.5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3,218.9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18.3
외국인지분율(%)	17.26
주요주주 지분율(%)	
하림지주 외 10 인	54.91
국민연금공단	8.61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6,929.4	7,022.7
영업이익(십억원)	680.6	689.6
순이익(십억원)	476.6	503.4
EPS(원)	892	942
BPS(원)	11,714	12,528

Stock Price**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5,161.2	5,432.9	7,045.4	7,937.5
영업이익	471.2	491.9	703.1	746.3
세전이익	282.1	318.2	519.9	579.2
순이익	268.1	301.4	493.9	550.2
EPS	502	564	924	1,029
증감율	9.61	12.35	63.83	11.36
PER	6.57	6.83	6.24	5.61
PBR	0.31	0.36	0.50	0.46
EV/EBITDA	4.77	5.15	4.59	4.42
ROE	5.17	5.30	8.27	8.55
BPS	10,576	10,707	11,631	12,450
DPS	120	150	210	230



Analyst 안도현 dohyunahn@hanafn.com

팬오션 (028670)**3Q26 Pre: 점점 더 탄탄해지는 이익 체력****2분기 못지않은 3분기가 될 것**

팬오션 3분기 매출액은 41% (YoY) 증가한 1조 7,850억원, 영업이익은 48% 증가한 1,849억원(영업이익률 10.4%)으로 전망한다. 고운임 상태가 유지되며 전 사업부가 2분기 못지않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SK해운으로부터 매입한 VLCC가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기여를 시작할 예정이다. 벌크선 영업이익은 45% (YoY) 증가한 800억원으로 추정한다. 3분기 평균 BDI는 3,000pt로 2022년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벌크선수익성도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3분기 컨테이너선 영업이익은 150억원으로 예상한다. 컨테이너선도 마찬가지로 전쟁 이후 상황이 양호하고, 전쟁이 종식 된다고 가정해도 피더선 수요가 견조하기 때문에 수익성은 과거 대비로는 높여 봐야 하는 상황이다. LNG선 영업이익도 전분기와 유사한 450억원으로 예상한다. 3분기 탱커선 영업이익은 122% (YoY) 증가한 450억원으로 추정하는데, 주력인 MR탱커의 운임은 2분기 대비 낮아졌으나 SK해운으로부터 매입한 VLCC가 추가될 예정이다. 원화 절상에도 불구하고 전쟁 이후의 상황이 좋았고, 특히 에너지 수송에서 YoY 증익 폭이 클 예정이다.

점점 추정치가 올라가요

팬오션은 최근 공시를 통해 VLCC 1척에 대한 대선 계약을 일간 운임 \$10만에 체결했다고 밝혔다. VLCC 원가가 \$25,000/day 미만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2027년에는 최소 연간 370억원의 영업이익이 추가되는 계약이다. SK해운으로부터 매입한 10척의 VLCC와 2027년 신조 인도되는 2척의 VLCC까지 포함하면 2027년 연간 VLCC 사업부의 영업이익은 1,28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벌크선 시장이 2026년 대비 하향 안정화 된다고 가정해도 여전히 증익 가시성이 매우 높다는 판단이다. 2026년 연간 영업이익은 7,031억원, 2027년에는 7,463억원으로 추정치를 상향했다.

전쟁 이후에도 원유선 강세는 지속된다

중동 전쟁이 해상 운임 상승의 트리거로 작용했으나 전쟁이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운임 하락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에너지 재고를 보충하기 위해서 원유선 강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해운 시장 변동성에 대비하는 측면에서 VLCC로의 포트폴리오 확장은 매우 긍정적인 변화로 생각한다. 올라간 수익력에 기반하여 배당금도 증액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며, 2027년부터 신규 수립될 신규 배당 정책도 기대되는 요인 중 하나이다. 팬오션에 대해서 투자 의견 BUY와 목표주가 9,000원을 유지한다.

2026년 10월 1일 | 기업분석_스몰캡_Report

Not Ra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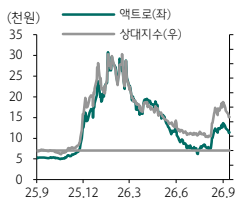
현재주가(9.30) 11,420원

Key Data

KOSDAQ 지수 (pt)	855.91
52주 최고/최저(원)	30,750/4,965
시가총액(십억원)	114.9
시가총액비중(%)	0.02
발행주식수(천주)	10,065.0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60.7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0.6
외국인지분율(%)	11.75
주요주주 지분율(%)	
하동일 외 7 인	38.15

Consensus Data

	2025	2026
매출액(십억원)	N/A	N/A
영업이익(십억원)	N/A	N/A
순이익(십억원)	N/A	N/A
EPS(원)	N/A	N/A
BPS(원)	N/A	N/A

Stock Price**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2	2023	2024	2025
매출액	133	157	203	245
영업이익	(6)	5	2	7
세전이익	(11)	6	4	8
순이익	(9)	6	1	7
EPS	(927)	571	148	733
증감율	적전	흑전	(74.1)	395.3
PER	N/A	14.1	34.2	22.0
PBR	0.9	1.1	0.7	2.0
EV/EBITDA	16.6	3.9	2.7	10.2
ROE	(14.7)	8.4	2.1	10.1
BPS	7,015	7,476	7,556	8,062
DPS	100	100	100	100



Analyst 권태우 tkwon@hanafn.com
RA 김진우 jinwookim1336@hanafn.com

액트로 (290740)**본업 안정화와 북미 신사업, 2027년 이익 체질 개선****상반기 부진 이후, 4분기 회복 예상**

2026년 상반기는 모바일 전방 수요 둔화와 폴디드즘 공급 지연 영향으로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다. 3분기에도 중국·북미 플래그십 고객의 메모리 수급 차질로 폴디드즘 출하 정상화가 지연되면서 전사 손익은 BEP 부근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다만 4분기는 국내 플래그십 모델 생산에 따른 계절적 성수기 효과와 북미향 6축 검사기 초도 공급이 더해지며 실적 회복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상반기부터 이어진 실적 부담을 지나 4분기부터 기존 액추에이터 물량 회복과 신규 사업 매출이 동시에 반영되는 국면이다.

공급 안정화 정책, 본업의 질적 개선

2027년에는 기존 스마트폰 액추에이터 사업의 변화가 예상된다. 주요 고객사의 공급 안정화 기조가 강화되면서 모델별 공급 물량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주기적인 가격 경쟁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판가 안정성과 생산능력 활용도 개선이 기대된다. 당사는 OIS·일반 AF 매출액을 2026년 1,091억원에서 2027년 1,276억원, 폴디드즘은 동기간 898억원에서 1,003억원으로 추정한다. 올해 폴디드즘 출하 지연으로 본업의 성장성이 제한됐던 것과 달리, 내년에는 물량 회복과 공급 환경 개선이 맞물리면서 기존 사업의 이익 기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북미향 6축 검사기, 예상보다 빠른 성과

신규 사업 가운데 가시성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분야는 북미향 6축 성능검사기다. OIS·AF의 다축 성능을 하나의 장비에서 검사할 수 있어 기존 개별 검사 방식 대비 설비 투자와 공정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경쟁력이다. 당사는 북미 고객사향 정식 수주를 확보했으며, 4분기 복수의 글로벌 협력사에 초도 장비를 공급한 뒤 2027년부터 출하 규모가 늘어날 전망이다. 당사는 북미향 6축 검사기 매출액을 2026년 65억원에서 2027년 293억원으로 추정한다. 기존 제품 대비 수익성이 높은 장비 매출 비중 상승은 내년 전사 이익 증가를 견인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전장은 양산 진입, 로봇은 2027년 성장 축

북미 완성차향 전장 부품은 8월 중순 양산을 시작해 3분기 말부터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현재 월 30~40만개 생산이 가능한 자동화 라인이 가동 중이며, 추가 라인은 2027년 상반기 구축 후 생산에 투입될 예정이다. 당사는 전장 매출액을 2026년 60억원에서 2027년 207억원으로 추정한다. 휴머노이드용 AF 액추에이터는 복수의 샘플에 대한 고객 평가가 진행되고 있으나 최종 사양과 적용 모델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현 일정을 감안하면 본격 양산은 2Q27 이후가 현실적이며, 2027년 99억원의 초기 매출을 예상한다. 2027년 예상 실적은 매출액 2,957억원(+35.1% YoY), 영업이익 166억원(+324.9% YoY, OPM 5.6%)이다. 본업 안정화에 북미향 검사기·전장·로봇이 새로운 이익원으로 더해지면서 2027년은 고부가 신규 사업 비중 상승에 따른 이익 증가 속도에 주목해야 하는 시점이다.

2026년 10월 1일 | 산업분석_Earnings Preview

Overweight

Top Picks 및 관심종목

하나투어(039130)

BUY | TP 48,000원(하향) | CP 30,050원

모두투어(080160)

BUY | TP 11,000원 | CP 8,210원

*CP 2026년 9월 30일

여행

연말에 바닥을 고민해봐야 하는 이유

목표주가 하향. 다만, 지난 20년간 3년 연속 역성장은 없었다

2024년 말 정치적 이슈와 항공 참사, 그리고 2026년 전쟁에 따른 고유가 지속 등으로 2년 연속 업황이 부진하다. 하나투어 기준 2년 연속 패키지 송객 수 역성장이 예상되는데, 지난 20년간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면 이번이 2번째다. 패키지 여행은 역성장이 아닌 저성장 산업으로 전술한 이슈들이 내년에 반복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반드시 이연 수요가 발생한다는 산업의 특성을 감안하면 2027년에는 회복의 가능성이 높다. 가파른 원화강세가 고유가(및 높은 유류할증료)로 상쇄되고 있는데, 만약 유가 이슈만 정상화된다면 높은 이연 수요를 기대해볼 수 있다. 2027년 예상 P/E 8~9배 수준의 현 주가 수준이라면 연말쯤에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나투어: 3Q 예상 OP 40억원(-52%)

3분기 예상 매출액/영업이익은 각각 1,085억원(-12% YoY)/40억원(-52%)으로 컨센서스(85억원)를 하회할 것이다. 예상 패키지 송객 수는 39만명(-13%), 예상 ASP는 114만원(+10%)으로 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할증료 인상이 ASP 상승으로 이어졌지만 수요에는 부정적이었다. 추석 연휴가 있었지만 길지 않아 수요 진작에는 한계가 있었다. 지역별로도 일본과 중국이 소폭 성장했으나, 동남아 및 장거리 노선이 모두 부진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4분기도 높은 유류할증료로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만약 유가가 전쟁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된다면 원화강세와 맞물려 수요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준비중인 인바운드 플랫폼도 내년에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 참고사항으로는 자사주 5.2%가 연내 소각될 것으로 추정되며, 8월 공시를 통해 2028년 8월부터 행사 가능한 스톡옵션 29만주를 경영권 거래 완료(매각) 조건으로 대표이사 포함 경영진에 부여하였다. 실적 하향을 반영해 목표주가를 48,000원(-9%)으로 하향한다.

모두투어: 3Q 예상 OP -25억원(적지)

3분기 예상 매출액/영업이익은 각각 352억원(-6% YoY)/-25억원(적지)으로 부진할 것이다. 예상 패키지 송객 수는 14만명(-18%), ASP는 132만원(+10%)으로 추정된다. 지역별로는 일본과 중국 위주로 고성장 하고 있지만, 동남아를 포함한 그 외 지역은 높은 유류할증료 영향으로 -50% 내외를 기록하며 부진하다. 4분기는 그래도 월 송객 수 6만명 내외로 회복하겠지만, 적자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 연간으로는 적자 전환이 불가피해 보이지만, 전술한 변수들이 완화되어 2027년 월 7만명 수준까지 회복한다는 가정하에서는 영업이익 150억원 내외까지 가파르게 반등할 것으로 전망한다.



Analyst 이기훈 sacredkh@hanafn.com
RA 김채현 chaehyeonkim@hanafn.com

2026년 9월 30일 | Global Equity

유비테크 (9880.HK)

높아진 기대와 현실의 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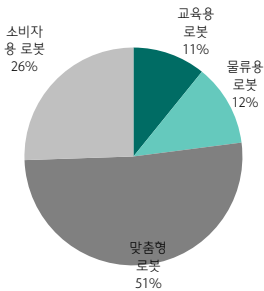
중국

TP(컨센서스) 139.47 HKD
CP(9.29) 73.20 HKD

Key Data

국가	중국
상장거래소	홍콩
산업 분류	산업재
주요 영업	기계
홈페이지	www.ubtrobot.com
시가총액(십억HKD)	36.6
시가총액(조원)	6.3
52주최고/최저(HKD)	157.7/73.7
주요주주 지분율(%)	
Jian Zhou	20.65
Zuoquan Xia	3.96
주가상승률	1M 6M 12M
절대	(7.3) (14.9) (45.3)
상대	(3.9) (14.0) (38.1)

매출구성



Financial Data

(백만 CNY)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	1,305	2,001	3,673	6,014
영업이익	(1,128)	(722)	(423)	59
순이익	(1,124)	(703)	(465)	103
EPS(CNY)	(2.2)	(2.1)	(0.7)	0.5
EPS(YoY, %)	적지	적지	적지	흑전
ROE(%)	(51.8)	(51.0)	(4.0)	4.6
PER(배)	-	-	-	128.8
PBR(배)	13.5	15.8	4.5	4.2
배당률(%)	-	-	-	-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Analyst 송예지 yeajisong@hanafn.com

Ultra-Bionic U1 로봇 난항

유비테크 주가는 휴머노이드 로봇 섹터의 투자심리 악화와 연간 출하량 가이드스 하향 등의 영향으로 YTD -42% 하락했다. 최근에는 소비자용 Ultra-Bionic 휴머노이드 로봇 U1 시리즈의 주문과 실제 인도 규모 간 격차가 부각되고 있다. 올해 6월 유비테크는 인간의 외형을 모사한 Ultra-Bionic 로봇 U1을 출시했고 사전 주문량은 1.3만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최근 경영진이 제시한 연내 실제 인도 가능 물량은 1,500~2,000대에 불과해, 사전 주문이 실제 출하로 이어지는 속도는 더딘 상황이다. 또한, 7월 중국 정부에서 AI 의인화 상호작용 관련 규제를 발표하면서 U1의 가정용 서비스 확장에 제약이 생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휴머노이드 로봇 출하량 가이드스 하향

유비테크의 휴머노이드 로봇 출하량은 1H26 921대(2025년 1,079대)를 기록했으며, 중국 시장 점유율은 4% 수준이다. 1H26 휴머노이드 매출은 6억위안으로 YoY +1,445% 증가했고 매출 비중은 47%까지 확대되었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높은 마진율에 힘입어 전사 GPM도 YoY +9.7%p 개선된 44.7%를 기록했다. 연구·교육기관 향 출하 비중이 높은 유니트리와 달리, 유비테크는 자동차·3C 제조업체 등 산업용 출하 비중이 높으며, 고객층도 대기업 중심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경영진은 류저우 지역 생산라인 가동이 3개월 지연되면서 2026년 로봇 전체 출하 가이드스를 기존 1만대에서 6,000~7,000대로 하향했다. 다만, 통상 하반기에 주문이 집중(25년 하반기 비중 70%)되는 계절성과 생산라인 정상화를 감안하면 유비테크의 하반기 로봇 출하량은 상반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가 모멘텀 부재, 주요 투자자 지분 축소 가능성

경영진은 순이익 BEP 달성 목표를 2027년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조정 EBITDA는 2H26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휴머노이드 로봇 수직계열화를 통해 전사 GPM을 50%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비테크의 단기 주가 상승 모멘텀은 제한적이다. 휴머노이드 섹터 전반의 투자심리가 악화된 가운데 연간 출하 가이드스가 하향됐고, U1의 주문 대비 실제 인도 규모와 가정용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도 남아 있기 때문이다. 또한, 텐센트를 비롯한 상장 전 주요 투자자의 지분 축소 가능성도 주가 부담 요인이다. 향후 주가 반등을 위해서는 Walker S 중심의 산업용 휴머노이드 출하 확대와 U1 생산 정상화 및 실수요 확인, 흑자 전환을 통한 수익성 개선 가시화가 필요하다.

2026년 9월 30일 | Global Equity

블룸에너지(BE.US)

프리몬트 제조시설 확대와 800V DC 코멘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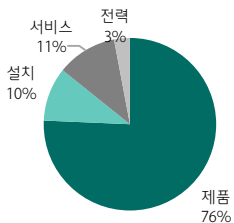
미국

TP(컨센서스) 291.45 USD
CP(9.29) 291.25 USD

Key Data

국가	미국
상장거래소	나스닥
산업 분류	유틸리티
주요 영업	전기 공익 사업체
홈페이지	www.bloomenergy.com
시가총액(십억USD)	85.8
시가총액(조원)	116.2
52주최고/최저(USD)	351.28/70.89
주요주주 지분율(%)	
VANGUARD GROUP	9.11
이메리프라이즈 파이낸셜	6.18
주가상승률	1M 6M 12M
절대	38.2 118.6 295.7
상대	38.7 98.1 280.6

매출구성



Financial Data

(백만 USD)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	1,474	2,024	4,095	6,690
영업이익	108	221	842	1,569
순이익	65	198	864	1,622
EPS(USD)	0.28	0.76	2.705	4.8025
EPS(YOY, %)	3.8	1.7	2.6	0.8
ROE(%)	22.2	22.2	42.5	42.9
PER(배)	N/A	N/A	103.6	56.3
PBR(배)	9.0	31.7	40.1	24.3
배당률(%)	0.0	0.0	0.0	0.0

자료: BE, Bloomberg 시장예상지, 하나증권



Analyst 김시현 sihyun_kim@hanafn.com

프리몬트시 제조시설 거의 2배 확대

캘리포니아 프리몬트시는 링크드인을 통해 블룸에너지가 158,000 ft² 규모의 시설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블룸에너지는 프리몬트와 델라웨어에 주요 제조시설을 갖고 있으며 각각 셀 프린팅과 완제품 조립을 주로 담당한다. 2022년 7월부터 임차한 프리몬트 시설의 규모가 164,000 ft²임을 고려할 때 이번 발표는 거의 2배에 해당하는 대규모의 시설 확장이다. 블룸에너지가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발표한 연간 캐파는 2025년 1GW, 2026년 말까지 2GW다. 블룸에너지는 캐파 제약과 주문 제약이 없어 매출 성장은 이제 고객사가 부지를 얼마나 빨리 지을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오라클, Project Jupiter에서 Force Majeure 확보

지난주에는 오라클이 Project Jupiter(총 2.45GW)에 대해 Force Majeure를 선언했다. 데이터센터가 2028년 예정대로 가동하지 못할 경우 임대료 지급 시점도 연기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불가항력 통지는 개발 과정에서 흔히 있는 일이며 오라클의 Project Jupiter에 대한 의지는 변함이 없는 예방적 조치이기 때문에 오히려 꾸준히 언급되던 프로젝트 지연 우려를 완화했다는 판단이다. Project Jupiter의 최종 환경평가 결정이 12월 3일 이전이며 상업운전 개시까지는 17주가량 소요된다고 가정할 때 빠르면 2027년 상반기부터 2028년에 걸쳐 공급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800V DC에 블룸에너지를 더하면 기존 대비 TCO 21% 절감 효과

연료전지는 배전 방식이 800V DC로 변환되는 흐름에도 부합한다. 처음부터 직류 전력을 생산해 교류-직류 변환 과정을 피할 수 있으며 또 다른 직류 발전원인 태양광과 달리 연속으로 가동할 수 있다. 최근 타임라인 지연 우려를 감안하더라도 2028년 Kyber 랙의 본격적 등장과 함께 전력 소비가 1MW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랙당 약 180kg의 구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기존 교류 인프라를 유지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데이터센터 총 비용에서 칩, 서버 등의 비용을 제외한 비컴퓨팅 비용은 40%로 전력 시스템, 냉각, 건물, 운영비가 포함된다. 기존 AC-그리드 방식 대비 800V DC+그리드 방식은 6%, 800V DC+블룸에너지 방식은 21%의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추가 변동성을 키웠던 프로젝트 지연 우려는 오히려 Force Majeure 통지 이후 부지 공사가 일정대로 진행 중임을 재확인하면서 상당 부분 해소되었고, 프리몬트 캐파 확장도 구체화되었다. 단기 변동성 확대 구간을 비중 확대 기회로 활용할 만하다는 판단이다.

단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SK하이닉스 (000660.KS)	9/21	1,857,000	1,776,000	-4.36%	- 주요 AI 고객사 공급을 기반으로 고부가 DRAM 비중 상승 및 수익성 개선 기대 - AI 서버 투자 확대와 DRAM-NAND 수급 개선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실적 성장 기대
SK이노베이션 (096770.KS)	9/21	136,600	148,800	8.93%	- 정제마진 회복과 윤활유 사업의 견조한 수익성을 바탕으로 에너지 부문의 실적 기대 - SK온의 유럽 판매 회복과 북미 ESS 배터리 공급 확대가 중장기 성장동력으로 부각
두산 (000150.KS)	9/21	1,447,000	1,368,000	-5.46%	- AI 데이터센터 확대에 따른 고부가 CCL 수요 급증으로 전자BG 실적 고성장 전망 - 대규모 국내·중국 생산능력 증설과 자사주 전량 소각을 통한 주주환원 기대
DN오tom티브 (007340.KS)	9/21	49,300	48,700	-1.22%	- 글로벌 공작기계 업황 회복과 우주항공방산·로봇 등 고수익 산업향 수주 확대 - Heller 인수 시너지 2027년부터 본격화될 가능성 높아
세아베스틸지주 (001430.KS)	9/21	45,050	44,950	-0.22%	- 오일&가스·방산·반도체 등 전방 수요 회복과 공격적 영업전략으로 특수강 판매 증가 - 미국내 특수합금 공장과 사우디 무게목강관 공장의 사업 본격화로 외형성장 기대
해성디에스 (195870.KS)	9/21	57,500	61,900	7.65%	- 로봇·산업용 반도체 확대로 주력 제품인 리드프레임의 판가 및 출하량 개선 기대 - 창원 생산능력 증설을 기반으로 리드프레임·패키지기판 공급 확대 가능
올릭스 (226950.KQ)	9/21	111,600	102,500	-8.15%	- 로레알·Weiss의 1,108억원 투자로 siRNA 기술력 입증 및 R&D 재원 확보 - OLX702A 2상 진입과 OLX104C 임상 결과 등 하반기 모멘텀 기대
RFHC (218410.KQ)	9/21	60,100	58,500	-2.66%	- 방산 매출 확대와 RF머트리얼즈 실적 호조로 이익 성장세 지속 - 미국 Upper C-band 주파수 경매와 국내 5G SA-6G 투자 재개가 중장기 성장 모멘텀
티앤엘 (340570.KQ)	9/21	27,300	27,600	1.10%	- 주력 하이드로콜로이드 제품의 판매 회복과 비용 효율화에 힘입어 상반기 수익성 개선 - 핵심 고객사 Church & Dwight의 트러블슈어 패치가 아시아 시장으로 확대될 예정
더블유씨피 (393890.KQ)	9/21	10,290	10,040	-2.43%	- 전기차용 분리막 수요 회복과 함께 ESS용 분리막 출하 확대에 따른 가동률 상승 기대 - 북미·국내 ESS향 공급 확대와 신규 고객사 다변화를 기반으로 실적 회복 진행중

단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주간(This Week)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1.73%	+1.72%p	+76.84%	+14.96%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주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5%선 적용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SK하이닉스 (000660.KS)	10/1	1,776,000	신규	-	- 주요 AI 고객사 공급을 기반으로 고부가 DRAM 비중 상승 및 수익성 개선 기대 - AI 서버 투자 확대와 DRAM-NAND 수급 개선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실적 성장 기대
삼성전기 (009150.KS)	10/1	1,513,000	신규	-	- AI 서버용 고용량 MLCC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공급사들의 증설은 제한적 - AI 가속기용 FCBGA의 대형화·고다층화로 구조적 공급 부족 장기화 전망
삼성SDI (006400.KS)	10/1	515,000	신규	-	- 북미 ESS 라인 본격 가동과 소형전지 가동을 상승으로 하반기 흑자 기조 지속 기대 2Q26 7개 분기 만의 흑자 전환에 이어 2027년 영업이익의 1.48조원 전망
SK이노베이션 (096770.KS)	10/1	148,800	신규	-	- 정제마진 회복과 윤활유 사업의 견조한 수익성을 바탕으로 에너지 부문의 실적 기대 - SK온의 유럽 판매 회복과 북미 ESS 배터리 공급 확대가 중장기 성장동력으로 부각
KT&G (033780.KS)	10/1	176,200	신규	-	4분기 자사주 매입/소각과 더불어 배당 비중이 확대되는 새로운 주주환원 발표 전망 - 카자흐스탄 신공장 가동 이후 유라시아 커버리지를 확대하면서 해외법인 고성장 유지 중
S-Oil (010950.KS)	10/1	161,700	신규	-	- 베네수엘라의 OPEC 탈퇴 및 미국과의 에너지 협력 강화 가능성 대두 - OPEC의 균열, 중동의 가격 결정력 약화 및 아시아 정유업체의 원가 경쟁력 강화 요인
대한항공 (003490.KS)	10/1	32,000	신규	-	- 국제선 운임 상승과 항공화물 운임 초강세가 고유가 부담을 상쇄하며 3분기 호실적 전망 2027년 아시아나항공 통합 효과와 여객 프리미엄화-MRO/항공우주 성장 기대
코스맥스 (192820.KS)	10/1	267,000	신규	-	- 국내 고성장과 미국 법인 흑자전환, 동남아 턴어라운드 동시 진행 - K-뷰티 수출 호조와 글로벌 ODM 1위 경쟁력이 본격 반영되는 가운데 12MF PER 11배 수준
풍산 (103140.KS)	10/1	77,600	신규	-	- 전기동 가격 강세에 따른 메탈 이익과 해외 신동 자회사 수익성 개선 기대 2분기 이연된 방산 매출의 3분기 인식으로 실적 반등 예상
심텍 (222800.KQ)	10/1	150,300	신규	-	- SOCAMM 전용 공장 신설과 고다층 MSAP 증설을 통해 AI 서버용 메모리 기판 성장에 대응 - 가동률 상승과 고부가 제품 믹스 개선을 통해 중장기 이익률 추가 개선 가능
피에스케이홀딩스 (031980.KQ)	10/1	178,600	신규	-	2026년 글로벌 OSAT 업체(Amkor, ASE, SPIL 등)의 리플로우 장비 발주 모멘텀 지속 - HBM-CoWoS 후공정 핵심 장비 Reflow-Descum 수혜 전망
RFHIC (218410.KQ)	10/1	58,500	신규	-	2027년 미국-국내 주파수 경매 및 5G SA 투자 확대가 통신 부문의 추가 성장 동력 - NXP 통신사업 철수 등으로 GaN TR 공급 쇼티지 가능성 상승하며 이익 성장세 강화 가능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지난 분기(3Q)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17.24%	-1.42%p	+39.98%	-21.93%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분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5%선 적용

ETF 투자유망종목

해외주식분석실



국내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KODEX 미국 시테크TOP10 (485540)	2026.07.16	16,205	15,435	-4.8%	- 미국에 상장된 대형 기술주 중 AI 관련 키워드 유사성이 높은 10개 종목을 선별하여 유동시가총액과 LLM 스코어링을 합산하여 편입 비중을 산정. 1위~3위 기업은 각각 20% 비중으로 편입해 집중도를 높인 구조 - 현재 핵심 편입 종목은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이며, AI 산업 트렌드 변화에 맞춰 새롭게 부상하는 AI 기업들을 포트폴리오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
HANARO 미국 에이전트AI TOP2+ (022710)	2026.09.22	10,655	10,530	-1.2%	- 에이전트 AI 밸류체인 중 모델 기업과 인프라 기업을 선별하여 투자하는 패시브 ETF. 상위 TOP2 종목을 각각 25%씩 편입하는 집중된 구조 - 9월 초 공개된 메타의 AI 에이전트 서비스 흥행으로 AI 에이전트 시장의 성장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에이전트 AI 생태계 확장을 주도하는 AI 모델 기업들의 성장 모멘텀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KODEX AI반도체 TOP2플러스 (395160)	2026.02.27	29,560	42,050	42.3%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양산 본격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및 한미반도체 등 국내 AI 반도체 밸류체인 핵심 기업에 집중 투자 - 온디바이스 AI 확산과 AI 서버 수요 폭증으로 인한 메모리 수급 불균형 속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실적 개선 및 가치 재평가 기대
TIGER 글로벌AI 사이버보안 (418670)	2026.07.16	18,430	18,705	1.5%	- 글로벌 기업 중 사이버보안 연관 산업에서 매출이 50% 이상 발생하는 기업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하는 패시브 ETF - AI 확산 과정에서 사이버보안에 대한 인식이 AI로 인한 시장 잠식 우려 대상에서 AI 도입 시 필수 인프라로 전환됨에 따라 AI 보안 기업들의 가치 재평가 기대
RISE AI전력인프라 (0101N0)	2026.08.28	20,520	21,480	4.7%	- 국내 AI 전력 생태계에 포괄적으로 투자하는 ETF로 발전 설비뿐 아니라 송배전, 데이터센터 후공정까지 전력 밸류체인 전반을 커버 - 하이퍼스케일러의 인프라 투자 확대와 북미 지역의 노후 전력망 교체로 전방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전력망 보호를 위한 행정명령은 국내 전력기기 업체에 수혜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RISE 미국시클라우드 인프라 (0127R0)	2026.09.22	16,720	16,685	-0.2%	- 미국 상장 네오클라우드 4개 기업과 AI 데이터센터 인프라 6개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패시브 ETF. 네오클라우드와 네트워크, 전력, 광통신 등 AI 데이터센터 인프라 기업을 함께 편입하는 것이 특징 - AI 연산 수요 증가로 데이터센터의 전력·네트워크 등 인프라 병목이 심화되는 가운데, 컴퓨팅 자원을 공급하는 네오클라우드와 데이터센터 인프라 기업의 동반 수혜 기대
HANARO 글로벌 금채굴기업 (473640)	2026.08.28	36,855	31,560	-14.4%	- 글로벌 우량 금 채굴 기업에 투자하는 ETF. 금 현물 투자와 달리 편입 기업들의 배당 지급을 통해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 - 미국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실물 자산인 금의 가치를 지지하는 요인으로, 금 가격 상승 국면에서 레버리지 효과가 기대되는 금 채굴 기업들의 투자 매력도 부각될 전망
ACE 고배당주Plus 커버드콜액티브 (0199C0)	2026.07.16	9,980	8,920	-10.6%	- 고배당주 80%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각각 10% 비중으로 편입하여 고배당주 포트폴리오로 시장의 흐름을 추종할 수 있는 커버드콜 액티브 ETF - 포트폴리오의 30% 비중까지 콜옵션을 매도하는 구조로 월 분배금 재원을 마련하고 비교제 배당 종목을 편입하여 배당과 절세를 함께 추구. 향후 국내 데일리 옵션(ODTE) 도입 시 추가적인 배당 재원 확보 가능. 액티브 운용방식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커버드콜 비중 조절

주1) 기준가는 편입일 기준 최신 마감 종가(한·중·일 ETF: 편입 당일 종가, 미국 ETF: 편입 전영업일 현지 종가) 기준

주2) 전일종가는 작성일 기준 최신 마감 종가(한·중·일 ETF: 작성 당일 종가, 미국 ETF: 작성 전영업일 현지 종가) 기준

주3) 국내 ETF의 기준가 및 종가 통화: 원(KRW)

Global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CHAT (생성형 AI 및 기술)	2026.07.16	88.42	92.36	4.5%	• 생성형 AI 관련 기술을 통해 매출을 창출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는 ETF로 AI 밸류체인인 실질적인 성장 모멘텀을 누릴 것으로 기대 • 액티브 운용 방식으로 유연한 포트폴리오 조정이 가능하며 OpenAI와 엔트로픽 지분을 보유한 소프트뱅크그룹과 SK텔레콤을 편입해 비상장 AI 파운데이션 모델 기업에 대한 간접 노출까지 확보한 차별화된 구성이 특징
SMH (글로벌 반도체)	2025.11.24	326.13	606.90	86.1%	• 대형주 비중이 높은 대표 글로벌 반도체 ETF. 매출의 50%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생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 • 엔비디아의 실적과 가이던스를 통해 AI 산업의 꾸준한 성장 모멘텀 확인. SMH는 NVIDIA와 TSMC가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 Capex 경쟁 지속 가운데 소비 AI 시장 확장, 신제품 교체 기반의 견고한 수요 기대 유효
FTXL (미국 반도체 펄리티)	2026.09.22	247.92	252.50	1.8%	• 미국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기업 중 이익, ROA, 모멘텀, 현금흐름 등 펀더멘털 및 주가 흐름이 우수한 기업을 선별하여 투자하는 ETF. 현금창출력을 기반으로 편입 비중을 산정하는 것이 특징 • AI 인프라 투자 확대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시장 경계감도 동반 상승하는 구간에서, 특정 종목 쏠림을 완화하며 안정적인 성과를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CBR (사이버 보안)	2026.07.16	93.09	101.97	9.5%	• 사이버보안 기업으로 분류되는 글로벌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하는 대표적인 사이버보안 테마 ETF • 상위 5개 종목 합산 비중을 40%로 제한하여 대영주에 집중된 구조이면서도 그 외 네트워크 인프라, 사이버 방산 관련 기업까지 함께 편입해 사이버보안 밸류체인 전반에 노출 가능
SPHQ (미국 대형 펄리티 주식)	2026.03.23	75.24	84.61	12.5%	• 수익성(ROE), 이익의 질(미결제영업자산 변동), 재무 건전성(레버리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S&P500 내 최상위 우량주 100개를 선별해 투자 • 매크로 불확실성 및 실적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탄탄한 펀더멘털을 보유한 기업에 집중해 지수 대비 견고한 하방 경직성과 장기적인 초과 수익 추구
NCLD (AI 컴퓨팅 인프라)	2026.09.22	24.84	23.80	-4.2%	• AI 연산에 특화된 컴퓨팅 인프라를 제공하는 네오클라우드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액티브 ETF •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확보가 주요 병목으로 부상함에 따라, 고성능·고효율 AI 컴퓨팅 인프라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오클라우드 업체들의 가치가 부각될 전망
GRID (전력망 및 스마트그리드)	2026.07.16	182.63	178.27	-2.4%	• 스마트그리드 및 전력 인프라 관련 매출 비중이 높은 글로벌 전력기기 기업들을 포괄적으로 편입하는 전력 인프라 테마 ETF • 미국의 노후화된 전력망 교체 사이클과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급증이 맞물리며 전력 인프라 기업들의 중장기적인 실적 성장 모멘텀 지속될 것으로 기대
XBI (바이오테크)	2026.07.16	156.22	156.81	0.4%	• 미국 바이오테크 종목 약 150개를 동일가중 방식으로 편입하는 분산형 ETF로 중소형 종목들의 임상 및 M&A 이벤트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구조 • 글로벌 빅파마들이 특허 만료를 앞두고 파이프라인 확보를 위해 M&A를 비롯한 투자에 적극 나서면서 바이오 업종 전반의 투자 심리 개선 기대

주1) 기준가는 편입일 기준 최신 마감 종가(한·중·일 ETF: 편입 당일 종가, 미국 ETF: 편입 전영업일 현지 종가) 기준

주2) 전일종가는 작성일 기준 최신 마감 종가(한·중·일 ETF: 작성 당일 종가, 미국 ETF: 작성 전영업일 현지 종가) 기준

주3) Global ETF의 기준가 및 종가 통화: 달러(USD)

Calendar

글로벌투자분석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9.27	9.28	9.29	9.30	10.1	10.2	10.3
	- 일본 8월 PPI (3.7%, 이전치 3.6%) - 중국 8월 산업생산 (4.2%, 이전치 11.2%)	- 유로존 9월 소비자대지수 (16.5, 이전치 -16.5) - 미국 7월 FHFA 주택가격지수 (0.3%, 이전치 0.0%) - 미국 9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대지수 (81.9, 이전치 89.4)	- 한국 8월 광공업생산 (-2.2%, 이전치 3.6%) - 일본 8월 소매판매 (-1.2%, 이전치 2.1%) - 일본 8월 광공업생산 (3.4%, 이전치 3.9%) - 중국 9월 레이팅독 제조업 PMI (52.1, 이전치 51.5) - 중국 9월 레이팅독 서비스업 PMI (51.6, 이전치 51.4) - 미국 9월 ADP 취업자 변동 (E 75k, 이전치 38k) - 미국 8월 PCE (E 3.7%, 이전치 3.7%)	- 일본 3분기 단간 대형 제조업 지수 (E 25, 이전치 22) - 일본 3분기 단간 대형 서비스업 지수 (E 36, 이전치 37) - 한국 9월 수출 (E 62.5%, 이전치 68.7%) - 한국 9월 수입 (E 21.0%, 이전치 22.5%) - 미국 9월 ISM 제조업지수 (E 54.9, 이전치 54.6)	- 한국 9월 CPI (E 2.9%, 이전치 3.1%) - 일본 9월 실업률 (E 2.4%, 이전치 2.4%) - 유로존 9월 CPI (E 3.7%, 이전치 3.2%) - 미국 9월 실업률 (E 4.1%, 이전치 4.1%)	
10.4	10.5	10.6	10.7	10.8	10.9	10.10
	- 유로존 8월 PPI (E --, 이전치 5.8%) - 미국 9월 ISM 서비스업 지수 (E 55.2, 이전치 55.4)	- 독일 8월 공장수주 (E --, 이전치 2.5%) - 유로존 8월 소매판매 (E --, 이전치 -0.6%)	독일 8월 산업생산 (E --, 이전치 -1.1%)	미국 8월 도매 재고 (E --, 이전치 --)	미국 10월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 (E --, 이전치 48.1)	

주: 1) 괄호 안은 예상치(E), 전월 순, 한국시간 기준 (*E)는 당사 추정치. 2) 유로권, 북미는 전월대비(PCE 디플레이터는 전년동월대비), 아시아, 신흥국은 전년동월대비 기준, 3) P(속보치), A(잠정치), F(확정치)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